억울한 복음

(요9:13~34)

30.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2.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34.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억울한 복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억울한 복음'
국어적 사용에 준해서 볼 때는 복음이 억울하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너무나 억울하다' 그런 뜻에서 '억울한 복음'이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복음을 믿기에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꺼이 부릅니다만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보기 드문 일이 아니라, 편만한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에 우상이 800만개라 그래요, 800만 개.
그 중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도 다수 있답니다.
또 불교의 스님들이 아무 거부반응이 없이 교회에 와서, 종교 간의 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취지하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무 저항감 없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부릅니다, 그런데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뭐죠? 복음은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 안에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장에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부대끼면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시장에서 장사하며 물건 사는 동안에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리화 된 십자가 복음의 죄 사함. 화석화 돼버리고 박제화 돼버려 내용이 다 빠져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십자가복음 이야기는,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삶의 정 중앙에서 십자가복음의 의미가 살아 있어야 십자가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럼 왜 안 받아들이느냐?
억울해서.

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억울한 겁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대로 중립적 처음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30살이건 40살이건, 50이건, 60이건 70이건 80이건 간에, 80살이라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상태 그대로 중립적 처음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중립적 처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전까지의 모든 잘못, 모든 실수, 모든 불행, 모든 범죄의 결과로부터 중립이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상황은 그대로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상황에 스며들어 있던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불행, 나의 범죄의 모든 그 결과의 색깔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중립이 되어 버린 다는 거예요.
죄 값으로부터의 중립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런 처음이 주어질 때에 과거의 모든 죄 값으로부터 중립이 되는 상태가 될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가져 다 주는 경이로운 신비함이에요, 놀라운 능력이고.

그런데 이 중립적 처음이 억울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중립적 처음이 억울하겠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게 억울한 사람들.
승승장구 해온 사람들, 화려한 스펙, 정말 뛰어나 커리어나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 이 사람들은 중립적 처음이라는 게 너무 억울하지요.
이제껏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걸 다~ 제로로 돌리고 그 승승장구 해 왔던 자부심 넘치고 자긍심 가득한 자기의 이제까지의 삶을, 그 효과를 그 결과를 중립으로 놓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로인 상태에서 다시 삶을 살게 되는 중립적 처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 동안 내가 해 왔던 노력, 쌓아 올렸던 공든 탑이 그것이 너무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더 쉽고 유리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더 있겠습니까?
실패자들, 사회 루저(loser)들, 이런 사람들이 쉬운 거예요.
아무런 이력이 없는 사람들, 스펙이라고 내 놓을 게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좋은 거지요.
범죄자들, 자기가 저지른 범죄 값의 그늘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중립인 처음의 시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점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기가 막힌 거지요.
근데 한편으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억울한 거지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박 근혜 씨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건희 씨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 괜히 하신 말씀이시겠습니까, 폼으로?
이 말씀이 있는데도 부자들이 편안하게 예수님 이름 믿으면서, 교회를 들락거리는 것이 참 신기해요, 난 신기해요, 그것이.
다~ 중립적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박 근혜 씨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놓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보여 집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우왕좌왕, 설왕설래, 갈팡질팡 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어려울 게 없는 사건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 된 자가 눈을 뜬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못 받아들이고 본인에게 부모에게 무려 다섯 번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 보세요.
13절부터 우리가 읽은 30절 이전까지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네 번 질문하고 부모에게 한 번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네가 낫게 됐느냐?' '어떻게 네가 낫게 됐느냐?'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네가 낫게 됐느냐?' '어떻게 당신의 아들이 낫게 됐느냐?'
왜 이렇게 우왕좌왕 하고 갈팡질팡 하는 걸까요?
도저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이들은 이 명확하게 눈앞에 나타난 이 사건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걸까요?
깊은 영적인 심리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신비하게 숨겨져 있는 영적인 심리상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억울해서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억울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28절에 보면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이 모세의 제자는 요즘 말로 말하면, 나는 KS이다.
KS가 뭡니까? 경기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 졸업한 겁니다.
아니면 나는 SKY 출신이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SKY 출신이다, 하버드대 출신이다.
이런 얘기와 똑같다는 겁니다, 나는 모세의 제자라는 말이.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그 의식이, 예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심리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도 몰라요, 왜 자기들이 예수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지,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쳐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왜 못 받아들이고 있는지 본인들도 몰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입장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지만 예수님을 아직 정면으로 만난 게 아닌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제자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한, 중립적 처음으로 되돌려 지는 십자가 사건에서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면,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과정은 어떻게 설명 될 거냐? 십자가사건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 사람은 만나고 있는 거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요한복음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그 질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게 십자가 형벌이, 그런 정도의 형벌이 합당하다고 여겨질 만큼, 자기 자신에게서 죄를 보지 못하고 있는 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십자가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 자신을 십자가 형벌에 마땅하다고 그런 정도의 형벌이 마땅하다고 여길 만큼 자기를 죄에 물들고 죄에 찌들어 있다고 보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건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하다고 여겨질 그 정도로, 자기를 죄인으로 파악하는 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심리상태를 보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의 심리상태 속에는, 내가 십자가에서 걸려 죽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억울한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마땅한 자로 여김을 받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여김을 받기에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다는 게 뭡니까?

아무 잘못이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하여 분하고 답답한 겁니다.
아무 잘못이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는 게 십자가 사건이라면, 내가 십자가 사건에 연루된다든지, 십자가 사건에 죽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나는 내 마음 속에 느끼고 있을 때, 자기의식은 몰라도 예수님과 안 만나지는 겁니다.
이 상황이 예수님과 자꾸 비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십자가 사건이 기억되지 않기 때문인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시장에서 십자가 사건이 기억되지 않는 이유는, 억울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사건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보기에는, 나는 그 정도까지는 잘못한 게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느꼈을까요? 이 타고난 맹인이.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선민인 유대사회에서 절대불변의 통념이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 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게 선택 받은 백성들인데, 태어날 때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당시 나병 같은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럴 때, 절대불변의 확고한 확신을 갖고 받아들여지는 통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죄인이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는 통념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자아의식을 갖게 되면서부터 들은 말이 뭐냐 하면, 쑤군대고 자기를 향해서 지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할 때도 듣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할 때, 태어날 때부터 지체장애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는 거예요, '무슨 죄가 저렇게 크기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지체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냐?'

그런 말을 들으면, 자기도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자신에게 그거 적용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아의식이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는지 20살이던 30살이던 40살이던, 그 긴긴 세월동안에 부모의 죄인지 자기의 죄인지는 확증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의 죄이든지 간에 죄 때문에 자기가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24시간 지배하고 있는 자아의식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날 만큼 죄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아의식의 내용으로 갖고 있었고, 정체감의 내용으로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접근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질 만큼 자기를 깊게 깊게 죄인으로 보면서 살고 있는 이 소경에게, 이 맹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나를 만난 이 시점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왜?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될 정도로 깊은 죄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십자가에서 연합했으므로 이제 이 사람에게 있었던 과거의 모든 색깔이 다 사라지고, 맹인이라는 상태가 죄 값에 대해 중립적인 처음이 되는데, 이 처음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일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건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제로원, 제로원' 하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해보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자식문제가 있을 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겠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내게 다가오는 사건들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주문처럼 나에게 외우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이거 아니에요.
인격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질 만큼, 나 자신에게서 죄의 깊이와 넓이와 무게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봐서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진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내 삶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처음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적인 고백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어떻게 봅니까?
이 이야기를 다음 부분에서 해 주고 계십니다.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보고 있는데, 맹인이 아니게 태어난,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정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죄를 못보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문제지요?
억울한 복음.
왜 십자가가 시장에선 기억되지 않을까?
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이 사실이 직장에서는 기억되지 않을까?
왜 아내와 대화할 때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사건이, 정말 이 지구 위에서 일어난 그 어떤 사건보다도 우선적인 사건이고, 엄청난 비용을 하나님께서 지불한 사건이고, 가장 비싼 비용을 지불해서 이루신 사건인데, 왜 그 십자가 사건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보다 더 중대한 일인, 그 십자가 사건이 내 마음에서 기억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처럼, 죄의 흔적을 발견하고 있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이 사람처럼, 내게서 죄를 못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십자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복음의 힘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떡하던지 십자가복음, 십자가에서의 나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고 마땅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깊이 있게, 넓게, 무게감 있게 나의 죄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심리상태는 십자가를 향하여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삶의 와중에서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복음이 내게 억울하지 않게 해 주시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마땅하다 여겨질 만큼, 무엇보다도 내 성공과 내 비전과 나의 자랑을 보기 전에, 나의 죄를 먼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